

2010.11.15 미래정책연구실

□ USDA 곡물생산 전망치 연속아양조정

1. FINANCIAL TIMES(2010.11.09) 주요 내용

- USDA는 지난 10월에 이어 주요 곡물생산 전망치를 3개월 연속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세계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.
 - 세계 최대 옥수수 수출국인 미국의 올해 옥수수 생산량은 지난 10월 전망치보다 1.5부셸 낮은 에이커당 154.3부셸을 기록함.
 - 재고량도 8억 2,700만 부셸로 15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.
- 시카고선물거래소(CBOT)에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부셸당 6달러를 넘어섰으며, 대두는 4.3% 증가함. 또한 뉴욕시장에서 면화가격은 파운드당 1.51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.
- 곡물가격 상승은 식품업체들의 생산비 압박과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음.
 - 덴마크의 맥주업체인 Carlsberg는 보리와 맥아의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여 맥주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밝힘.
- 중국 최대 유식작물(oilseed) 가공업체인 Nobel의 최고경영자 Ricardo Leiman은 “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식품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”고 주장함.
 - 중국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 면화값도 급등하면서 미국의 면화재고량은 1925년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함. 이에 USDA는 중국 수출을 위해 면화 재고량을 하향조정하기로 함.
- FAO의 선임 경제학자인 Abdolreza Abbassian은 “미국정부의 이번 발표는 곡물시장에 위협을 알리는 경고”라고 주장함.

- FAO가 발표한 식품가격지수는 곡물대란이 있었던 2008년 중순 이후 최고치를 나타냄.

2. 시사점

- 세계 농산물 가격 동반 상승 가능성 및 국내외 파급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

□ 달러 저평가로 인한 미국 농업에 간접특혜

1. Agra-Europe(2010.11.09) 주요 내용

- 유로 대비 미 달러의 저평가(under-evaluation)로 인해 지난 2년간 미국 농업은 간접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(Subsidy)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됨.
 -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농업 싱크 탱크인 Momagri는 국제사회가 화폐 및 통화 불균형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,
 - 특히, 최근 미국과 EU간의 화폐 및 통화 불균형으로 인해 미국 농업이 얻은 경제적 효과가 2008년에는 178억 달러에 달했으며, 2009년에는 14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밝힘.
- 뿐만 아니라, 유럽중앙은행(ECB)보다 미국연방준비제도(FRB)가 더 유리한 금리를 책정함에 따라, 미국 농부들은 2008년 29억 달러, 2009년 1억 6백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함.
 - 유럽중앙은행(ECB) 기준금리 1.0%(17개월째 동결), 미 FRB 기준금리 0~0.25%
- Momagri의 Pierre Pagesse 회장은 현재 투기세력으로 인해 어느 때 보다 불안정해진 농업 시장을 보면서 새로운 금융 및 식량 위기가 우려된다고 밝힘.

- 이에 따라 이번 서울 G20에서부터 환율 및 화폐 변수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하며,
 - WTO의 규제를 받지 않는 국제 농업 무역 자유화에 대한 위협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함.
- 현재의 유로와 **미 달러의 환율 변동 추이는 경제 위기가 시작되던 당시와 유사하다**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함.
- 경제 위기 이전 2007년 중반의 환율은 €1:\$1.30 수준이었으나, 2008년 초 €1:\$1.45로 상승하였고, 2009년 말에는 €1:\$1.50까지 치솟은 바 있음. 현재 환율은 €1:\$1.39 수준임.
- 이러한 화폐의 급격한 변동은 교역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임. 그러나 최근의 환율 상황은 EU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함.
- 2009년 유로화 대비 파운드 평가절하로 인해, 영국 농부들이 CAP 지불금에서 막대한 차익을 누리는 한편, 대유럽 수출 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누린 사례가 있음.

2. 시사점

- 우리나라 농업은 높은 곡물수입의존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농업 활성화 농정 등으로 해외 거시 변수(환율)에 영향을 많이 받음.
- 그러므로 최근 환율변동(달러 약세, 원화 강세)이 농산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

*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